

제1회 충남사회적경제 콜로키움

■ 토 론 2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역전략

김 성 훈
한국의료생협
정책위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역전략

김성훈(대전민들레의료생협 부이사장, 한국의료생협 정책위원)

-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의 의의는 첫째, 이해관계 대립의 원리가 아니라 상호연대원리에 따라 사업체를 운영하고자 하던 사람이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더 이상 변형된 주식회사 등의 투자자소유기업 형식을 빌리지 않아도 되었다. 둘째, 이종 간 협동조합간의 협동이 가능해짐으로써 지역사회 차원의 연합회 건설을 통해 협동조합 지역사회 건설의 꿈에 보다 다가갔다. 다만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을 영리조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비영리조직으로 이분화한 것은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협동조합은 본질적으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혜택을 목적으로 하며 민주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 그 자체로 비영리조직임을 분명히 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재분배 영역에 우선권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에 제약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기본법에 따라 출현하게 될 협동조합들이 투자자소유기업의 폐해를 극복하며 사람을 위한 경제, 대안경제, 다른 경제를 만들어가는 블록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삼는 것을 위협할 소지가 크다. 영리행위를 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 협동조합을 변용하는 부류가 생길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구분은 지역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된 형태의 사회적협동조합과의 연합회 구성을 할 수 없고 협의회 정도로 후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선의를 가진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들과 개인 간의 결사자들은 이 법에 근거하여 협동조합운동의 전진을 이루어내는 계기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 협동조합 7원칙은 협동 조합인들의 꿈인 협동조합 지역사회를 지향하는 원칙이다. 제1원칙 자발적이고 개방된 조합원 제도는 사업구역의 측면에서 볼 때 책임질 의사가 있는 지역민에게 우선적으로 개방한다. 제 2원칙 민주적 관리는 일상적인 생활의 관계가 전제되어야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이 열린다. 제 3원칙 경제적 참여 역시 사업의 이용을 전제로 출자와 배당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지역밀착형이지 않으면 안 된다. 제 4원칙 자율과 독립(자치와 자립)의 원칙은 그 자체를 지역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며 전국단위로 결집할 때에라도 지역 차원의 자치와 자립이 우선한다. 제 5원칙 교육훈련과 정보제공, 제 6원칙 협동조합간의 협동, 제7원칙 지역사회 기여의 원칙도 이와 같다.
- 협동조합 위기의 3단계, 신뢰의 위기, 경영의 위기, 정체성의 위기는 모두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위기이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의 핵심 경쟁력은 “조합원” 그 자신이기 때문에 조합원과 조합원이 살아가는 지역의 진전만큼 협동조합의 발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회적 목적뿐만 아니라 경제적 목적 실현을 위해서도 그러하다.

- 협동조합 지역사회론은 레이들로보고서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레이들로박사는 구체적으로 21세기의 협동조합을 내다보며 다음을 제안한다.
 - ① 향후 세계의 협동조합은 특히 세계의 식량문제의 해결을 위해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영역은 인류에게 매우 필요한 분야로서 협동조합은 여기서 세계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
 - ②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은 노동자와 작업장 간에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며 또 다른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다.
 - ③ 종래의 소협은 단지 자본주의 기업과 경쟁하는 것 이상의 활동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독특하고 차별성 있는 사업체로서 인정받게 될 것이고 조합원에게만 봉사하게 될 것이다.
 - ④ 도시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는 도시 안에 마을을 건설하는데 도움이 되는 많은 종류의 협동조합 집합체를 만들어야 한다.

- 협동조합 지역사회론의 핵심은 협동조합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과 개별협동조합, 특정 분야의 협동조합만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음을 자각하는 것으로 출발한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핵심경쟁력으로 하고 나아가 연합회 건설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나가는 것은 필연적인 발전경로가 된다.

- 무엇으로부터 시작할 것인가? 그 핵심은 시장이다. 현재의 시장은 대자본중심의 글로벌 시장을 지향한다. 이것은 사회양극화, 실업, 무분별한 자원낭비와 환경파괴, 인간성 상실, 공동체 파괴,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온다. 협동조합 지역사회라는 꿈에 입각하여 협동조합들은 협동조합 간 협동을 통해 호혜시장구축을 핵심 슬로건으로 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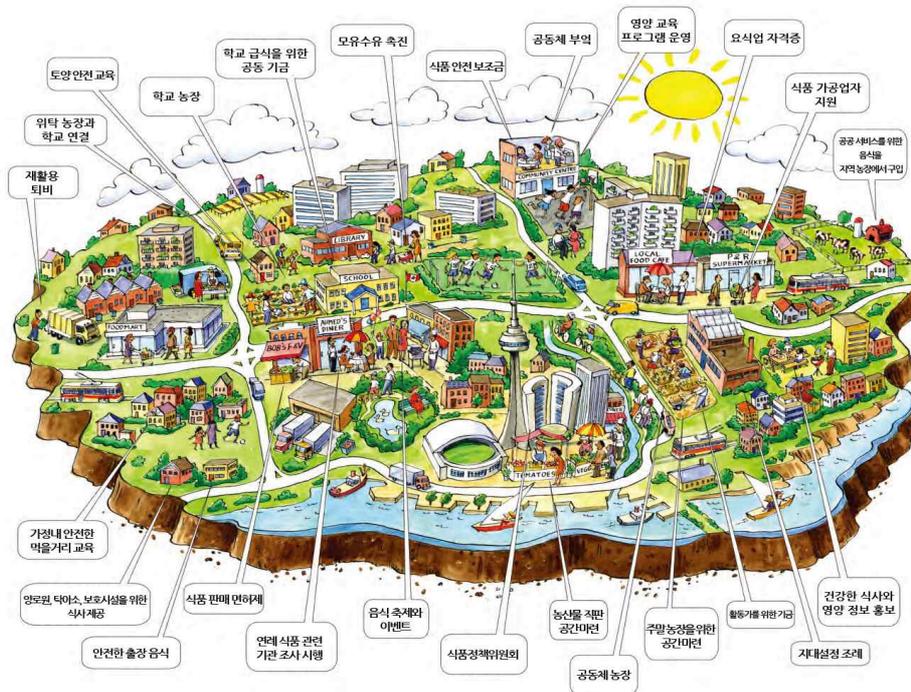
- 호혜시장이란, 개인의 이윤추구라는 동기로 화폐를 매개하여 상품을 교환하는 물신화된 경쟁 시장을 극복하고자 한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 사람과 공동체의 만남을 통해 “주고, 받고, 되돌려 주는” 호혜와 증여의 시장이며 선의를 가진 자들의 이타적인 만남을 통해 존중받아야 할 개인적인 욕구를 해결해나가는 시장이다. 이 시장은 관계지향적인 시장인 만큼, 단지 거래를 넘어 정이 살아나며 노래와, 춤이 있으며 인간다움을 향한 기도와 성찰이 있는 시장이다.

- 호혜시장의 기본 나눔은 먹을거리가 그 출발이 된다. 먹을거리는 인류 생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그 자체로 공동체적이고 호혜적인 생산기반을 전제로 한다. 식구(食口)란 개인화된 하나의 가정(Family)이 아니라 함께 먹는 입으로서 공동체(Community)이다. 다시 이 먹을거리는 농업의 결과물이므로 <농업-공동체-먹을거리> 인류생존의 필수요소이면서 그 자체로 호혜적이어야 한다. 레이들로보고서에서는 협동조합 지역사회론을 말하며 그 구체적 제안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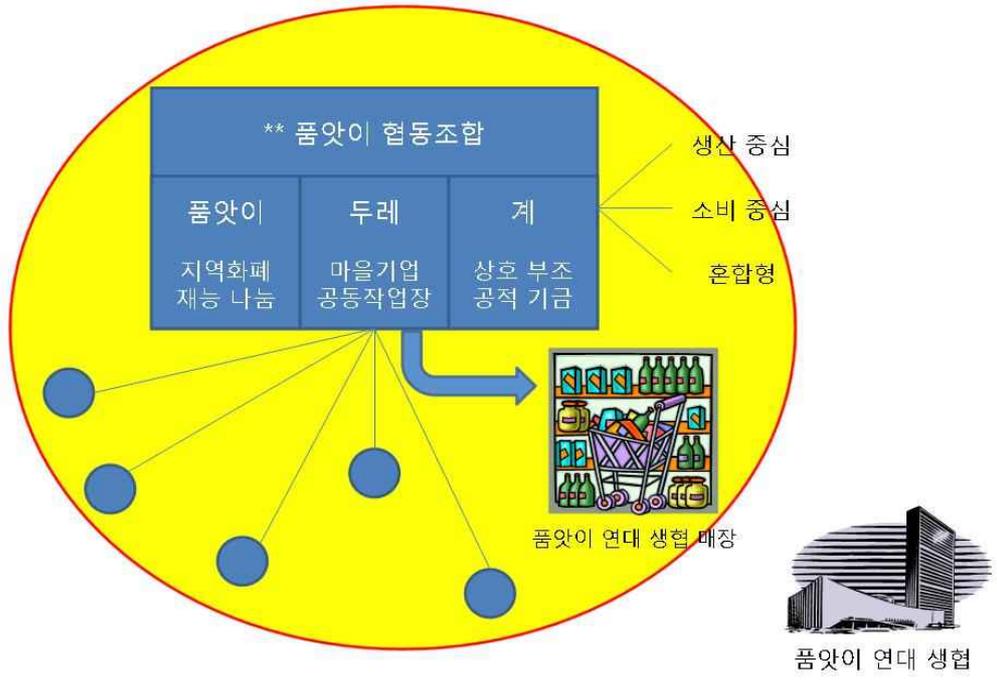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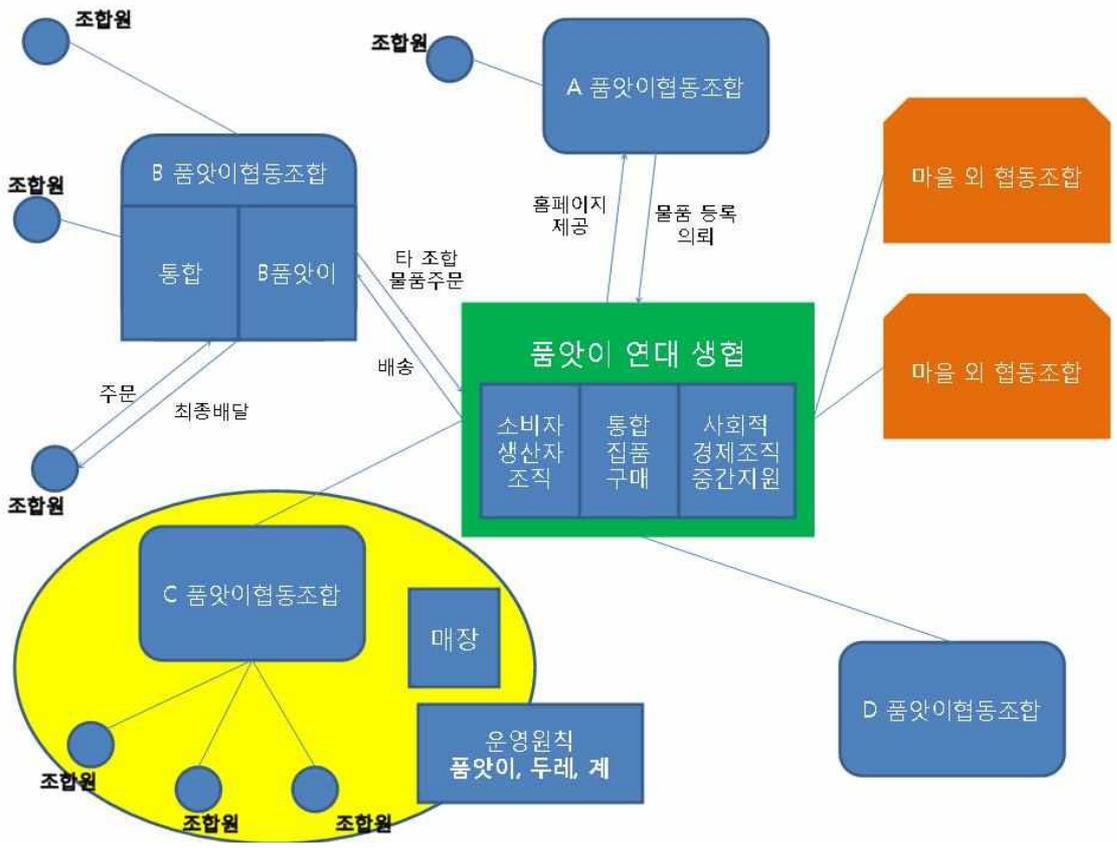
“향후 세계의 협동조합은 특히 세계의 식량문제의 해결을 위해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영역은 인류에게 매우 필요한 분야로서 협동조합은 여기서 세계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

- 현재 먹을거리의 생산, 소비, 유통은 점차 대자본의 지배하에 있다. 종자부터 식탁에 이르기까지 자본의 논리에 따라 급속히 왜곡 재편, 독점, 파괴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한 결과 구매 생협이 일정 성장을 하였지만 자본의 공격적 시장개척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생협마저 자본의 논리를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경영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바로 정체성의 위기를 맞게 되어, 이대로 진행된다면 장기적으로 세 가지 위기를 한꺼번에 경험하게 될 것이다.
- 자치와 자립의 식량조달, 대자본으로부터의 방어라는 가치를 들어 먹을거리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재조직해야 한다. 지역 내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상호 독립적 결사체로서 인정함과 동시에 지역연합물류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의 연합 사업단을 구성하여 내식, 외식, 단체급식 분야에 시장점유율을 높여나가야 한다. 특히 식생활습관의 변화를 읽어 다양한 가공영역에 진출해야 하며 문화적인 운동으로 확산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로컬푸드, 얼굴있는 가까운 먹을거리 운동이라고 한다.
- 대전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빌어 다음과 같은 비전도를 상상하고 있다. 현재 일부 생협간 공동물류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다.
- 협동조합운동의 핵심은 소비자란 이름의 지역주민을 “조합원”으로 세우는 과정이다. 소비자 이기만 한 인간존재는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 지역주민은 “고객” 혹은 “소비자”로 호출되어 자본의 대량생산 시스템의 생산물 소비를 강요당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로서의 자기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며 그것은 얼굴이 보이고 인간적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회에서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투자자소유기업의 임노동자로서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마을 안에 공동작업장을 만들고 함께 협동조합으로 생산하고 부족한 것은 이웃마을과 나눌 수 있는 상시적 구조를 만들어간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안으로 자급과 자립, 자치를 지향한다.
- 그 출발은 마을협동조합이다. 마을협동조합은 영국의 지역사회 이익회사나 캐나다의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과 같이 복합적 주체들이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마을 단위에서 공동체 관계의 힘으로 해결해나가는 조직이다. 마을협동조합은 우리의 전통 협동모델로는 품앗이, 두레, 계를 동시에 해나가는 조직이다. 품앗이는 1:1 노동력 교환은

대전의 25개 식품 연결 고리 (25 Food Connections to the City of Daejeon)



물론 다자간 품앗이를 가능하게 하는 레츠(LETS:Local Exchange & Trading System)나 유럽연합차원에서 진행 중인 감가하는 환전 지역화폐 모델들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순환하는 호혜적인 나눔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두레는 공동작업장으로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등이 해당될 것이며 계는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공제조합, 소액서민대출(Microcredit)을 통해 금융자본의 폐해를 극복한다. 이렇게 마을단위, 풀뿌리 차원의 협동조직이 살아나고 이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재계획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사회적 연대경제의 생태계가 살아날 것이고 이는 다시 개별 조직들의 생명력을 강하게 할 것이다.



-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이탈리아 볼로냐와 트렌토, 몬드라곤 공동체, 그 외 서구유럽의 협동조합 지역사회 모델들이 소개되고 있다. 한국에도 홍성의 풀무공동체, 원주의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서울 마포구의 성미산 공동체, 그리고 지역화폐와 농업생산자, 의료생협, 자영업자들이 결합된 대전의 사례가 협동조합 지역사회의 모델로 알려져 있다. 이들 조직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알게 된다. 첫째, 지속적인 활동가를 배출할 수 있는 지역사회 학교가 있다는 점, 둘째, 단지 소비자 조직이 아니라 1차생산물부터 서비스분야까지 생산의 영역에 건설한 협동조합이 존재한다는 점, 셋째, 먹을거리를 기본으로 다룬다는 점, 넷째, 대안적인 금융기관이나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점, 다섯째, 이를 홍보하고 선전하는 지역 언론 매체가 존재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은 향후 협동조합 지역사회라는 꿈을 실현하고자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할 지점이라고 본다.
- 한편 협동조합지역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한국사회에서는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이다. 노동자운동은 노동조합과 더불어 협동조합운동을 전개할 때 사회의 주역으로써 자기사명을 완성할 수 있다. 유럽의 협동조합운동의 출발이 노동자운동이 기반이 되었던 것과 한국의 굴절된 근현대사가 그것을 방해해온 결과가 협동조합 생태계의 질적 차이를 가져온 핵심지점이다. 둘째, 노동조합, 협동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지역의 살림살이 전체를 보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운동의 발전 경로상 자기분야로 집중하고 분열해가는 것 역시 필요하나 이것은 다시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공통된 지향을 통해 통일되어야 한다. 자기조직의 이해관계를 넘어 지역사회 변화전략이 우리에게 있는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나? 어떻게 연대하고 협동해갈 것인지를 논의하고 확정하여 가능한 것부터 공동행보를 시작해야 하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셋째, 저출산, 고령화사회를 대비 건강과 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비용을 감당해내는 사업체 의료생협, 혹은 의료복지협동조합을 지역별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의 대표적으로 현재의 의료생협을 지역사회 협동조합 간 협동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 정치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기본법에 따르면 공직선거에 관여금지에 의하여 특정인을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않도록 할 수 없다는 것이 정치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협동조합은 자신의 발전을 위해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해 정치적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생산하여 정치인과 정당을 협력을 구하거나 때로 압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협동조합 기본법의 중요한 한계로 지적되는 금융이나 공제사업 분야의 진출이 제한된 것은 정치력의 한계를 보여주었으나 향후 이를 극복해가야 할 것이다.
- 사회 전체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협동조합운동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자기한계를 분명히 가져야 한다. 이러할 때 다른 운동의 영역을 존중할 수 있으며 새로운 영역이 개발된다. 실제 개별 협동조합이 사회전체의 노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도 이것의 해결을 요구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협동조합내의 노동과 임금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연대를 구상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것이 최근 논의가 활발해진 기본 소득제, 노동시간 단축, 노동자 경영참여, 재벌구조 혁신 등의 문제의식이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조건들이 더불어 변화되어갈 때 상호연대의 관계원리를 확산시켜 나가는 협동조합운동이 비로서 힘을 쓰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선후의 문제라기보다 동시적 문제일 것이다.

○ 협동조합 지역사회, 협동조합 공화국이라는 꿈이 있다면 누구나 다음과 같은 슬로건을 말하게 될 것이다.

- 소비자에서 조합원으로
- 전국연대에서 지역연대로, 마을로
- 상층연대에서 하방연대로
- 동종연대에서 이종연대로
- 조합연대에서 조합원 연대로
- 이념연대에서 사업연대로
- 이슈연대에서 생활연대로
- 정치의 대상에서 정치의 주체로

○ **하방연대**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니까 이름이 '바다'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래로 손을 내미는 연대를 하방연대라고 부릅니다. 한 사회의 역량은 내부 소모를 줄이고 통합의 외연을 확대함으로써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통합은 낮은 곳, 약한 자와 연대해 나가는 하방연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신영복)

■ 참여연구진

구분	연구자	직 위		
내 부 참 여 자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 원장		
	송두범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신동호	지역경제연구부 연구위원		
	임준홍	기획조정실 책임연구원		
	허남혁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		
	강마야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		
	김종수	사회적경제센터 책임연구원		
	박춘섭	사회적경제센터 연구원		
	홍은일	사회적경제센터 연구원		
	이민정	지역경제연구부 연구원		
외 부 참 여 자	김영관	충남도 사회적경제T/F 팀장		
	김종수	충남도 사회적경제TF팀		
	구진홍	충남도 사회적경제TF팀		
	이경선	충남도 사회적경제TF팀		
	박영송	충남도의회 의원		
	전성환	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 대표		
	최선희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김민숙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추진환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박정현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이혁수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민대기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이용재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영미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강난숙	대전소비자연맹		
박기남	푸른아산21 실천협의회			

외 부 참 여 자	최옥란	한 살림 천안아산 이사장		
	노병갑	충남지역자활센터 사무국장		
	박상우	홍성 마을활력소		
	조남준	미래농업 팀장		
	박찬무	(주)즐거운밥상		
	김지철	충청남도 도의원		
	이은애	씨즈		
	김제선	풀뿌리사람들		
	김성훈	민들레의료생협		
	김종문	충청남도 도의원		
	김동준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원호	(주)푸드코아		
	홍은영	(주)푸드코아		
	조성희	충남교육연구소		
	박태구	중도일보		
	권성하	대전일보		